

2024 년 12 월 8 일 “(강림절 1 주) 참 제사장을 기다린 제사장 나라”(히 4:14-16)

16 세기 종교개혁자 존 칼뱅은 그리스도는 구약의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직분을 성취했다고 말했습니다(그리스도의 3 중직분). 오늘은 예수님이 참 제사장으로서는 그리스도가 되심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은 출애굽한(BC1450 경) 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출 19:5-6) 제사장 나라로서 출범했습니다.

율법은 두 영역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백성들의 하나님과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지키기 위한 말씀이고, 하나는 성막에 관한 구체적 말씀입니다. 성막은 죄사함을 위한 제사를 드리기를 위한 장소입니다. 사람은 죄를 용서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 백성에게 죄사함은 필수적입니다.

제사 집도를 위해 아론의 자손 가운데 제사장과 제사장들의 대표자로서 대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대제사장은 최고 영적 권위자로서 나라를 대표합니다.

대제사장은 종신제이며 일년에 한번 대속죄일에(욘 키푸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제사를 드립니다.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 받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속죄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또한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다리 역할을 하는 제사장 나라로서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를 잘 지키면 참 대제사장인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상 나라 위에 으뜸국가가 된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제사장 나라를 완성시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차원을 성취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요 예표로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기대하는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2]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때가 차서 아들(그리스도)을 보내셨는데(갈 4:4), 당시 대제사장들, 종교 정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온 백성을 선동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설명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보였던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결국 자기들 거짓 신념대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롬 10:2-3).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성품과 행동을 말합니다. 즉,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제사장 나라에서 드렸던 제사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제물로 주려고 왔다고(막 10:45)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히 9:12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써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 어떤 믿음과 태도가 필요할까요?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담대하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우리가 빈번하게 위축된 상태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죄책, 자책, 후회, 열등감, 열패감, 수치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 도움을 요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사람이 되풀이하는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무지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는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렸지만 막상 오셨을 때는 버림으로써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때마다 도움을 주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부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유대인들이 가졌던 제사장 나라에 대한 어떤 오해가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잃게 하였습니까?
2.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이끌어 주십니까?